

# “주민자치회 운영? 도시·농촌 간 차별화를”

# “우리집 막둥이와 함께”… 반려동물 축제

### 조례 따라 내년 시범 시행 앞둔 제주형 주민자치회 제주도의회, 어제 정책간담회 열어 운영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현길호)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와 공동 주최로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형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최근 주민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자치분권 시대에 들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법령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 시행 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추진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은 우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기초단체장이 위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단위가 불분명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에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미흡



29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형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함께 따라 유급 전담 사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협의의심사업, 위탁사업, 주민자치사업으로 구분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범위와 관련,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에게 의존하고 있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협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주민자치회 고려사항과 관련해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

시 및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의 운영지원은 타시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주민자치회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 의존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 내달 4-5일 시민복지타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2024년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개최된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돼 올해 4회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동물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리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 축제는 ‘우리 집 막둥이’란 콘셉트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인 팻티켓 홍보 및 캠페인, 반려동물 전문가 등의 강연, 수의사 무료 진료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1일 차인 5월 4일에는 반려인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 경

### 제협력체(APEC) 제주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멍냥을 림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입양가족들과 함께하는 ‘도르밍 미션달리기’, 반려동물과의 교감정도를 가능해 보는 ‘멍 때리기’와 ‘기다려’ 대회, 일상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들개 대치요령’ 강연 및 전문가 특별강연과 ‘셀프미용 시연’, ‘막둥이 미로대탈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도내 초등학교생들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 공연과 가수 장필순의 노래 및 토크 공연도 운영된다.

또 상시 프로그램으로 입양 홍보 및 알로우독 프로젝트 캠페인 등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 및 동물등록, 연관산업 홍보존, 어질리티 체험존 등을 운영해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한라체육관서 내달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제주시는 내달 5일 한라체육관에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씩씩하게 자라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이들 아동을 묵묵히 보살피는

아동복지 관계자 등 총 50명에게 표창이 수여되며 군악대 공연과 경품추첨 행사가 열리고, 곤충 바람개비 만들기, 요술 풍선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소중한 시간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월동채소 대체 ‘호라산 밀’ 재배 늘었다

### 작년 23농가→ 올해 38농가 서귀포시 “일반 밀·보리 비해 수매가 높아 소득 향상 기대”

서귀포시 서부지역 호라산 밀 재배 농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마늘, 월동무 등 대체 작물로 호라산 밀 재배 면적을 늘려갈 계획이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호라산 밀은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압질 환이나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 메밀 등과 이모작 체계 운영이 가능하고 면적당 생산량도 높은 이점을 지녔다.

이에 2022년 대정·안덕지역 23농가에서 그해 11월에 145ha 규모의

호라산 밀을 파종해 이듬해 첫 수확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재배 농가가 그보다 증가했다. 대정·안덕지역에서 38농가가 참여해 총 146ha 규모의 호라산 밀을 파종했고 오는 6월 말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수확한 작물은 별도로 구성된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와 유통업체 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매될 예정이다. 호라산 밀은 일반 밀, 보리에 비해 수매가격이 높지만 호라산 밀 7만 원, 일반 밀 3만 9000원, 보리 3만 3000원이다.

‘지역 특화 원예 소득 작물 육성 사업’으로 호라산 밀에 재배 장려금을 지원해온 서귀포시는 과잉 생산되는 월동채소 대체 작물로 유채, 유채, 비트, 녹두 등의 재배 면



안덕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호라산 밀.

서귀포시 제공

적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유채유용 유채 35ha, 비트 15ha를 파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호라산 밀 참여 농가 수에 비해 파종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경영 여건으로 인한 계약 재배 면적이 감소했

기 때문”이라며 “작목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들의 관심을 받는 호라산 밀 등 서귀포 농산물의 평균 부가가치를 높이는 영농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저소득 다문화 초중고 자녀 서귀포시, 교육 활동비 지원

서귀포시는 5월부터 서귀포시가족센터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운영

하는 것이다.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로 정해졌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이는 학습을 위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과 예체능·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종 감귤 만감류 등 각종 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포르토

화분묘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르토,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몬 /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르토,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 공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르토, 화분묘, 일반묘)**

하굴 / 팔삭 / 세미늘 / 금굴 / 당유자 / 머틀립오픈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 보조사업(묘목공급)지정업체 (원자정비와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르토,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향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품종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